

# 한복배색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연구

- 빨강저고리의 톤변화를 중심으로 -

## A Study in the Preference of Coloration in Traditional Korean Dres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 On the Tone Variation of Red Jacket -

강경자\* · 최수경  
경상대학교 의류학전공\* · 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Kyung-Ja Kang\* · Su-Kyung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Dept. of Beauty & Care, Masan College, Masan, Korea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ccording to tone variation of a red jacket, the prefer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from Korea and the U.S. for coloration in the traditional Korean dres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to a vivid skirt according to tone variation of red jacket, students of both countries showed the different view in the preference for coloration of vivid red skirt and vivid · dark red jacket, and vivid orange skirt and dull red jacket, and vivid yellow skirt and light · dull red jacket, and vivid violet skirt and dull red jacket. As to the light skirt according to tone variation of red jacket, student of both countries showed the different view in the preference for coloration of light red skirt and light red jacket, and light orange skirt and light red jacket. As to the dull skirt according to tone variation of red jacket, student of both countries showed the different view in the preference for coloration of dull red skirt and vivid · light · dull · dark red jacket, and dull yellow skirt and light · dull red jacket, and dull yellow skirt and light · dull red jacket, and dull green skirt and dull red jacket, and dull violet skirt and vivid · light · dull · dark red jacket. As to the dark skirt according to tone variation of red jacket, student of both countries showed the different view in the preference for coloration of dark red skirt and dull · dark red jacket, and dark orange skirt and vivid · light · dull red jacket, and dark yellow skirt and dull red jacket. As to the neutral skirt according to tone variation of red jacket, student of both countries showed the different view in the preference for coloration of white skirt and vivid red jacket, and dark gray skirt and light red jacket.

Key Words : Korean dress, coloration, preference, red jacket, tone

## I. 서론

현대사회는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활양식도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의 소비성향도 빨리 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미학적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패션제품에서 형태나 소재도 중요하지만 색채는 소비자의 기호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색은 개인이나 독특한 문화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보편성을 지니기도 한다. 디자인 요소로서 적절하게 사용된 색채는 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성은 각기 달라도 동일 문화권 내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문화의 독특한 색채가 존재하게 되고 공유할 수 있는 색채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예는 각 나라의 전통색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의복에서의 색채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두가지

---

\* Corresponding author: Koung Ja Kang  
Tel: 055) 751-5982, Fax: 055) 753-9030  
E-mail: kjkang@gsnu.ac.kr

이상의 색들이 배색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한복의 경우 다양한 배색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게 되므로 서양복보다 배색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Northrop(1946)은 동·서양의 문화를 교류·결합하는 추세가 세계화와 더불어 확산되면서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동양사상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향후 더욱 보편화 될 전망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역시 서구 문화에 한계를 느끼는 외국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컬렉션을 통해서도 동양풍의 디자인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 한복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실제적인 한복산업에 연결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감각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배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배색을 좋아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 특히 한복 선택시에 자기만의 독특한 느낌을 주는 배색을 원하게 되므로 배색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정도에는 개인차가 있게 되고 더구나 문화에 따라서도 선호배색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똑같은 색상의 배색도 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색상과 톤에 의한 배색 선호의 정도에서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들(나수임, 한명숙, 1984: 백선원, 1989: 이미경, 1989: 이선재, 1987: 이인자, 1982: 최승화: 1990)은 색상 선호 또는 색상과 심리적 특성을 관련시켜 연구하였고, 색상조합에 따른 이미지나 인상형성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강혜원, 고애란, 1991: 이명희, 2002: 이현화, 박찬부, 1997: 이혜숙, 김재숙, 1998: 차미승, 1992)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한복 배색의 조화감을 밝힌 연구들(강경자, 2001, 2002, 2004)이 있으나 한복의 색상과 톤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복배색의 조화감 평가에서 사람들에게 명도에 변화를 준 다수의 배색을 보여주고 자신이 느끼는 조화의 정도를 판단케 한 결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난색인 빨강저고리를 중심으로 치마색을 달리하여 치마와 저고리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한복배색의 색상과 톤에 의한 선호정도에서 문화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미여대생의 배색에 대한 감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 배색인 빨강치마와 노랑저고리, 빨강치마와 초록저고리의 배색만이 아닌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어떤 색과 어떤 톤의 치마가 조합될 때 선호되는지를 밝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복배색에서 빨강저고리와 치마색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정도를 밝힌다.
- 2) 한복배색에서 빨강저고리와 치마색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정도에서 문화간의 차이를 밝힌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빨강의 특성

색채는 의복에서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색은 의복디자인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지각되는 요소로 색상에 의해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빨강은 흥분, 열정, 자극적이고 격렬하여 감정을 고조시키지만 불안, 긴장을 증가시키는 색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복이미지로서의 빨강은 다른 색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어 활동성과 가능성이 요구되는 리조트웨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경희 외, 2002) 우리 고유의 오방색 중 빨강은 동양에서 생명과 벽사의 색으로, 서양에서는 분노, 주의, 위험을 상징하는 색으로 과거 왕후나 비빈의 복색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빨강의 명도가 높아지고 색조가 약해지면 분홍색 계열이 되는데 본래의 강렬한 이미지와는 달리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인자(1982)의 연구에서 빨간색 계통을 선호하는 사람은 따뜻하고 여성적이며 명랑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고, 차미승(1992)은 빨강 의복이 화려하고 현시성이 높아 두드러지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주현, 강혜원(1995)은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색채가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 요소로 부각되었고, 빨간색 Dress 착용자는 주의집중성 차원에 영향을 미쳐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유경숙(1996)의 색이미지 평가에서 빨강이 강한, 따뜻한, 화려한, 발랄한, 정열적,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다른 색에 비해 전달되는 이미지 특성이 많다고 하였다. 이명희·강승희(1998)는 재킷색에 따른 인상형성을 연구한 결과 빨강 재킷을 가장 능력있게 보았고, 평가요인에서도 빨강재킷이 흰색이나 회색 재킷을 착용했을 때 보다 더 호의적이고 젊게 지각되었다. 김윤경, 이경희(2001)는 의복에 나타난

레드의 톤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은은한 톤이 가장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선명한 톤이 매력적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현시성 요인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선명한 톤이 강렬하고 화려한 것으로, 은은한 톤이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의복 배색

배색은 하나의 색으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두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특히 의복에서의 색은 단색보다 둘 이상의 색이 배색되어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색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색면의 크기가 실제보다 작아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하며, 본래의 색과 다르게 보이므로 적절한 배색의 선택이 디자인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석재은, 1993)

이혜숙, 김재숙(1998)은 색조합에 의한 이미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복착용자의 상하배색 이미지는 저고리색과 치마색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치마색보다 저고리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식착용자의 인상형성시 얼굴이 중요한 변인으로 저고리가 얼굴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면적은 치마보다 작으나 이미지에는 좀 더 중요한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이현화, 박찬부(1998)의 연구에서 의복단서들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의복착용자의 인상에는 색상조화가 중심특질이 되어 다른 주변특질(구조, 치마색상)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영향에서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단서에 의한 영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의복단서(치마색상, 색상조화, 치마색상)중 치마색상에 의한 영향이 인상요인에 민감하게 나타났다. 이명희(2002)는 의복배색에서 품위, 매력성, 화친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흰색 상의 및 베이지색 하의, 베이지색 상하의는 품위와 매력성이 높았으며, 화친 요인은 빨강 상의 및 베이지색 하의, 베이지색 상하의가 비교적 높았고, 진남색 상하의는 품위, 매력성, 화친 요인이 모두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강경자(2001, 2002, 2004)는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톤인톤, 톤온톤, 무채색과 유채색의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조화-부조화라고 지각되는 배색이 구분되었고, 이들 배색의 조화범위가 문화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동색의 동일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서 문화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빨강의 동색배색인 톤온톤 배색에서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저고리와 덜 치마, 덜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가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이들 톤조합을 제외한 모든 톤 조합이 잘 조화

되고 특히 라이트, 비비드의 상하 톤조합을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한국여대생은 상하 어느 쪽이든 비비드와 라이트, 덜과 라이트 조합에서 높게 평가되어 분홍과 선명한 빨강의 배색이나 밝고 어두운 빨강의 배색을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즉 톤인톤 배색에서는 빨강저고리를 한색인 초록, 파랑, 보라와 조합할 때 톤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한미 문화 간에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난색인 주황, 노랑과 배색될 때 이들 배색이 비비드톤인 경우 한미여대생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라이트, 다크톤인 경우 양국 간에 차이를 보였다. 빨강저고리를 무채색 치마와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색감의 이미지가 선명한 비비드톤이나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라이트톤의 저고리와 다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무채색 치마와 조화된다고 지각하였으며, 미국여대생은 비비드톤의 저고리는 치마톤에 상관없이 잘 조화되고 덜톤의 빨강저고리와 밝은 회색이나 검정이,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어두운 회색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지각하여 문화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국여대생 모두 톤인톤,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 보다 톤온톤 배색의 조화 범위가 넓게 나타나 색상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배색유형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빨강저고리를 기준으로 치마색과의 배색방법에 따른 선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의복색채의 선호

의복 구매시 가장 관심을 갖는 점은 색과 디자인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의복 선택에 있어 색채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 성격, 자아개념, 환경, 생활방식 등이 개인의 색채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인자(1974)의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는 밝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실천적이고 과단성이 있으며 행동적인 반면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론적이고 사려성이 높고, 내향적·사색적이라고 하였다. 이미경(1984)의 연구 결과에서 성인여성의 색상에 대한 선호경향을 보면 20대는 핑크, 주황, 노랑색을, 30대는 연두, 바다색을, 40대는 하늘색, 풀색을 특히 선호하여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나수임, 한명숙(1986)은 의복선택의 기준이 색상과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여고생은 고명도 색상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하였고, 사회성이 클수록 밝은 색을 선호하고 어두운 색을 싫어한다고 평가되었다. 이선재(1987)의 연구에서는

밝은 색을 선호하는 여성일수록 경제관념·지배력·과시욕이 크며, 탁한 색을 선호하는 성인여성은 비경제적이고, 명성이나 권력추구에 관심이 적다고 하였다. 백선원(1989)은 기호색과 기호의복색 및 혐오색과 혐오의복색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연령이 많아질수록 무게 있는 색채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희(1990)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은 의복색으로 난색과 보색배색을 더 선호한 반면 미혼여성은 한색과 동색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원, 고애란(1991)은 여대생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복 및 한복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 연구결과 치마색이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분홍저고리와 보라색치마의 배색을 가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영인, 문영애(2000)은 국내 성인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의복색상이 주황, 파랑, 노랑으로 성별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무채색의 경우 여성은 검정을, 남성은 회색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남녀 모두 채도가 낮은 탁한 색조를 선호하고,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조를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의복색에 대한 선호정도는 연령, 결혼여부, 대상에 따라 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한복에서 색상과 톤조합에 따른 선호정도 그리고 문화간의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복배색시 빨강저고리를 기준으로 치마색과 톤을 다양하게 변화시켰을 때 이들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선호도를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분향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 1) 자극물

자극물은 치마·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그림 1]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으로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 색은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자수나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빨강, 주황, 노랑을 난색으로, 초록, 파랑, 보라를 한색



[그림 1] 한복 자극물

으로 구분한 분류기준(이은영, 1992)에 근거하여 치마색을 유채색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상으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무채색을 포함시켰다. 저고리 색상은 빨강으로 하고, 각 색상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

sample		연설기호
빨강 (red)	vivid	5R 4/14
	light	5R 8/6
	dull	5R 5/6
	dark	5R 2/6
주황 (orange)	vivid	5YR 6/14
	light	5YR 9/2
	dull	5YR 5/4
노랑 (yellow)	dark	5YR 2/4
	vivid	5Y 8.5/14
	light	5Y 8.5/6
	dull	5Y 7/6
초록 (green)	dark	5Y 3/4
	vivid	5G 5/10
	light	5G 8/4
	dull	5G 6/4
파랑 (blue)	dark	5G 2/4
	vivid	5B 5/10
	light	5B 8/4
	dull	5B 5/4
보라 (purple)	dark	5B 2/4
	vivid	5B 4/12
	light	5B 8/4
	dull	5B 5/4
흰색(white)		N9
밝은 회색(light gray)		N7
어두운 회색(dark gray)		N4
검정(black)		N2

자극물의 제작은 한복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 (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입력한 다음 선정된 색상이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전체 자극물은 무채색을 포함한 28가지 (7색, 4톤) 치마색과 12가지(3색, 4톤) 저고리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개의 실험배색으로 선정, 조사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저고리색으로 사용한 빨강, 노랑, 초록 3가지 색상(3색×4톤)중에서 빨강저고리(1색×4톤)만을 선정하고, 치마색으로는 무채색(N9, N7, N4, N2)을 포함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를 사용하여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 저고리의 색이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조작한 후 저고리색의 톤과 치마색의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하였다. 즉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와 무채색을 포함한 4가지 톤의 7가지 치마색이 조합된 총 112개(1색×4톤×7색×4톤)의 자극물만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 2) 자극물의 평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피험자내 설계로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336개)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피험자가 동시에 모든 자극물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16-17장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20회에 걸쳐 시간차이를 두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미국여대생의 경우는 모든 자극물(336개)을 2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16-17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1개의 무선조합에 배치되어 16-17장의 자극물을 평가하였으므로 피험자내 설계와 피험자간 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이 때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17장은 색상과 톤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따라서 평가된 336개의 자극물 중 112개의 자극물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 3) 선호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좋아하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

다.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해 예비조사시와 동일한 자극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검사-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45로 나타났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상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중인 83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9. 10월 초에서 12월 초 사이에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2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8. 11월에서 1999.1월 사이에 조사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 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 검증)을 하였다.

## IV. 연구 결과

한복배색에서 빨강저고리의 4가지 톤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치마색을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조작하고, 여기에 4가지 무채색치마를 포함하여 치마, 저고리의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한 후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그림 2], [그림 3]에 나타내었다.

### 1. 빨강저고리의 튜브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도

한복배색에서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4가지 톤의 6가지 치마색, 4가지 무채색치마와 조합하여 한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비비드톤의 6가지 치마를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튜브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4가

&lt;표 2&gt;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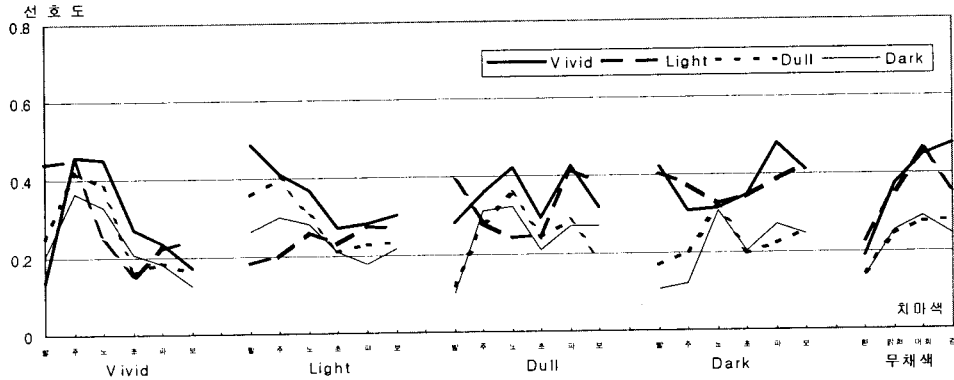
치마톤색	저고리톤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p-값	
		한국(M)	미국(M)	p-값	한국(M)	미국(M)	p-값	한국(M)	미국(M)	p-값	한국(M)	미국(M)	p-값	한국(M)	미국(M)
비비드	빨강	.135c	.633a	.0026**	.439a	.382	.5617	.251b	.317	.4334	.203bc	.350	.0398*	.0000***	.0984
	주황	.457a	.300ab	.0827	.448a	.350	.3332	.419ab	.100	.0005***	.363b	.250	.2136	.1150	.1543
	노랑	.451a	.417a	.7103	.240c	.433	.0266*	.384ab	.200	.0319*	.327b	.233	.3338	.0000***	.2059
	초록	.272ab	.150a	.1558	.153b	.217	.3079	.517b	.100	.4343	.206a	.250	.5714	.0016**	.4567
	파랑	.234a	.183a	.5566	.220a	.283	.4686	.185a	.250	.3906	.181a	.133	.5485	.3940	.5246
	보라	.173b	.283a	.3297	.247a	.217	.7367	.161b	.333	.0194*	.126b	.267	.1870	.0049**	.8384
	p-값	.0001***	.0138*		.0001***	.4088		.0001***	.1125		.0001***	.6194			
라이트	빨강	.486a	.450	.7144	.182	.483a	.0003***	.357b	.217bc	.1268	.264c	.250	.8588	.0000***	.0266*
	주황	.411a	.330	.2053	.199	.700a	.0000***	.396a	.550a	.0918	.300b	.183	.1575	.0000***	.0006***
	노랑	.368a	.433	.5908	.262	.183b	.3641	.300ab	.200ab	.1798	.283b	.200	.3544	.0316*	.1366
	초록	.272a	.267	.6577	.231	.250a	.8358	.209a	.233a	.8332	.212a	.200	.8761	.2913	.9643
	파랑	.281a	.317	.7182	.275	.383a	.2398	.228ab	.417a	.1718	.178b	.250	.3360	.0346*	.6657
	보라	.302a	.250	.5559	.269	.500a	.1121	.231ab	.150b	.2714	.217b	.167	.5078	.1009	.0321*
	p-값	.0000***	.5586		.0881	.0025**		.0000***	.0164*		.0040**	.9668			
덜	빨강	.283b	.483	.0239*	.386a	.183b	.0200*	.118c	.267	.0217*	.101c	.467ab	.0285*	.0000***	.1089
	주황	.356a	.317	.6627	.281b	.167a	.1285	.283ab	.217	.4284	.312ab	.317a	.9564	.1549	.4962
	노랑	.422a	.283	.1433	.241c	.300b	.0000***	.354ab	.167	.0398*	.322b	.150ab	.0509	.0001***	.1437
	초록	.295a	.283	.8912	.247ab	.167ab	.2625	.242ab	.083	.0223*	.212b	.317a	.1692	.1093	.1105
	파랑	.424a	.400	.8151	.416a	.250a	.1107	.281b	.333	.5980	.272b	.283a	.8840	.0000***	.6674
	보라	.318ab	.533	.0178*	.378a	.567ab	.0401*	.184c	.333	.0217*	.270b	.667a	.0000***	.0000***	.1394
	p-값	.0004***	.2361		.0000***	.0002***		.0000***	.2419		.0000***	.0138*			
다크	빨강	.421a	.467	.6355	.402	.400	.9846	.169b	.467	.0007***	.107b	.333	.0004***	.0000***	.7606
	주황	.308a	.500	.0192*	.375	.150	.0172*	.205b	.450	.0015**	.122c	.400	.0651	.0000***	.0889
	노랑	.316a	.433	.2067	.325	.183	.0925	.319a	.517	.0415*	.306a	.333	.7762	.9728	.0945
	초록	.347b	.233	.2330	.341	.267	.3761	.196b	.117	.2283	.202b	.267	.3760	.0000***	.4758
	파랑	.478c	.383	.3623	.384	.250	.1305	.222c	.367	.2591	.271c	.367	.2904	.0000***	.7311
	보라	.410b	.483	.4399	.425	.367	.5649	.254b	.400	.0947	.246b	.400	.0955	.0000***	.8791
	p-값	.0002***	.2966		.1672	.3612		.0008***	.0976		.0000***	.9482			
무채색	흰색	.188ab	.450	.0015**	.230a	.450	.1276	.145	.233	.1982	.135b	.200	.3541	.0201*	.1854
	밝은회색	.372a	.483	.2451	.354a	.483	.1772	.243	.433	.1662	.254b	.333	.3322	.0007***	.7318
	어두운회색	.448a	.567	.2363	.455a	.217	.0178*	.273	.217	.5149	.289b	.300	.8986	.0000***	.0074**
	검정	.476a	.467	.9310	.351b	.283	.4628	.278	.433	.0812	.243c	.317	.3844	.0000***	.4721
	p-값	.0000***	.8071		.0000***	.2473		.1035	.0845		.0002***	.7629			

\*p&lt;.05 \*\*p&lt;.01 \*\*\*p&lt;.001 L.S.D검정결과 P&lt;.05수준에서 a&gt;b&gt;c로 표시 비선호 &lt; .4 &lt; 선호

지톤의 빨강저고리 모두 비비드의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 주황치마나 노랑치마의 배색은 선호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은 가장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색배색보다 유사배색일 때 선호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비비드 빨강, 주황치마의 배색은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라이트, 덜톤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에서는 선호정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대체로 빨강저

고리의 톤에 상관없이 비비드 초록, 파랑, 보라치마와 배색될 때 선호정도가 낮아 빨강저고리와 한색계열의 배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와 라이트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과 [그림 2]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라이트를 제외한 비비드, 덜, 다크톤의 빨강저고리와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라이트 빨강치마의 배색을 가장 선



[그림 2]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도

호하고 주황, 노랑 치마 등 난색과의 배색을 비교적 선호하여 유사하게 공통성이 높은 배색을 좋아하고, 초록, 파랑치마와의 배색을 선호하지 않아 이질성이 높은 배색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덜톤의 빨강저고리를 라이트톤의 6가지 치마색과 배색할 경우 대체로 빨강, 주황색 치마와의 배색을 다른 배색보다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크 빨강저고리는 6가지 치마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선호된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빨강치마가 라이트톤인 경우 비비드톤의 빨강저고리가 가장 선호된 반면 라이트톤의 빨강저고리가 가장 선호되지 않아 한국여대생은 동일톤의 배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조화감지각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상하 톤조합은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톤의 동색배색일 때 선호도가 낮고 유사배색일 때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덜톤의 6가지 치마를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4가지 저고리톤 모두 덜톤의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노랑, 파랑치마의 배색,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빨강, 파랑치마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덜톤 빨강저고리와 빨강, 보라치마의 배색,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치마를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라이트 저고리를 제외한 비비드, 덜, 다크톤의 저고리와 6가지 다크톤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다크톤의 빨강, 파랑, 보라치마,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다크톤의 빨강, 보라, 파랑치마의 배색은 선호하여 분홍저고리에 보라색치마가 가장 선호된다는 선

행연구(강혜원·고애란, 199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덜 빨강저고리와 다크 빨강, 초록 치마, 다크 빨강저고리와 다크 빨강, 노랑치마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치마색에 상관없이 다크톤의 치마와 비비드,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와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은 색상과 톤차에 의한 대비배색의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덜, 다크톤의 빨강저고리는 치마색에 상관없이 다크톤 치마와의 배색에서 선호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치마색에는 관계없이 상하 어두운 톤의 배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채색의 치마를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과 [그림 2]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덜톤을 제외한 비비드, 라이트, 다크톤의 저고리와 4가지 무채색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어두운 회색, 검정 치마,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어두운 회색, 검정치마의 배색을 선호하고 덜,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4가지 무채색치마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치마는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크게 차이를 나타내어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라이트, 다크톤 빨강저고리와와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흰색, 밝은 회색치마와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빨강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대생이 선명한 비비드톤이나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라이트톤의 저고리와 다소 무겁고 어두운 저명도의 무채색치마가 잘 조화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강경자, 2004)와 유사하여 상의는 밝고 하의는 어두운 한복 고유의 배색에 익숙하여 선호된 것으로 생각된다.

2.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도

한복배색에서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4가지 톤의 6가지 치마색, 4가지 무채색치마와 조합하여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비비드톤의 치마를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3]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4가지 톤 중 비비드 저고리와 6가지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 빨강, 노랑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특히 상하가 비비드 빨강인 동색배색인 경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비드나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 비비드 노랑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으나 덜톤 빨강저고리와 비비드톤 주황, 초록, 파랑치마, 다크 빨강저고리와 비비드 파랑치마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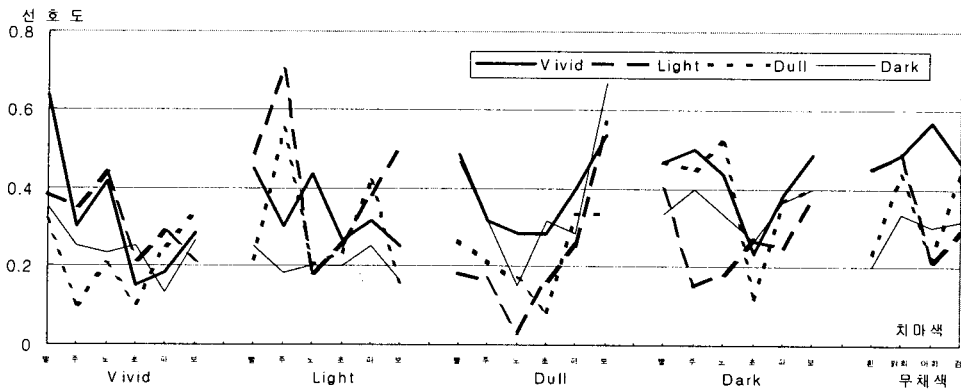
라이트톤의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과 [그림 3]에서 보면 라이트와 덜톤 저고리는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 라이트톤 빨강, 노랑치마의 배색,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라이트 빨강, 주황, 보라치마, 덜톤 빨강저고리와 라이트 주황, 파랑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 라이트톤 노랑치마,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라이트톤의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은 모두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치마를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3]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4가지 톤 중

비비드 저고리와 6가지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덜톤 빨강, 파랑, 보라치마의 배색,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 덜톤 보라치마의 배색,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덜톤 빨강, 보라치마의 배색은 선호하고,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 덜톤 빨강, 주황, 노랑, 초록치마의 배색, 덜톤 빨강저고리와 덜톤 노랑, 초록치마의 배색,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덜톤 노랑치마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치마를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3]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4가지톤 모두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 다크톤 빨강, 주황, 노랑, 보라치마의 배색,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 다크톤 빨강치마의 배색, 덜톤 빨강저고리와 다크톤 빨강, 주황, 노랑, 보라치마의 배색,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다크톤 주황, 보라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 다크톤 주황, 노랑치마의 배색, 덜톤 빨강저고리와 다크톤 초록치마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의 치마색을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와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선호정도를 <표 2>과 [그림 3]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에 관계없이 4가지 무채색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 흰색,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치마의 배색,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 흰색, 밝은 회색치마의 배색, 덜톤 빨강저고리와 밝은 회색, 검정치마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치마색에서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와의 배색인 경우 선호도가 높게 지각되었으며, 어두운 회색치마는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와의 배색을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낮게



[그림 3]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도



평가되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미국여대생은 흰색, 밝은 회색과 같이 명도가 높은 무채색치마와 비비드나 라이트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선호하여 상의는 밝고 하의는 어둡게 입는 한국 고유의 전통배색과는 차이를 보였다.

### 3.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한복배색에서 치마톤을 통제된 상태에서 치마 색상별로 저고리톤을 변화시켜 조합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 1) 비비드톤의 치마색과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비비드로 통제시키고 빨강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선호도에서 한국여대생은 차이를 보였으나 미국여대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여대생은 비비드톤 빨강치마와 라이트> 덜> 다크>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배색순으로, 미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다크> 덜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으니, 두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 빨강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비비드 빨강치마와 다크 빨강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미국여대생보다 이들 배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비비드톤의 주황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미국여대생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선호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 주황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선호하는 것으로, 미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노랑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으며, 미국여대생은 비비드톤의 노랑치마에 라이트,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비비드톤 노랑치마와 라이트, 덜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에서 양국 간에 차이를 보여 라이트 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선호하는 것

로, 덜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비비드 노랑치마는 양국여대생이 모두 선호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비비드톤의 초록, 파랑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미여대생간에 유사한 반응을 보여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비드톤의 보라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선호 정도가 매우 낮았다. 두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보다 미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라이트톤의 치마색과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라이트로 통제시키고 빨강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라이트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양국여대생 모두 라이트톤 빨강치마와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게 나타나 빨강의 톤은톤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톤인 라이트톤 빨강치마, 저고리와의 배색에서 미국여대생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여대생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미국여대생은 그들에게 익숙한 상하 동색배색의 suit차림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한국여대생은 한복배색에서 상하동색보다 한복의 상하 이색배색을 선호하는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여대생은 라이트 빨강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또는 이들 톤 배색을 반대로 저고리, 치마에 배색해도 선호하여 빨강과 분홍의 배색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경향을 알 수 있다.

라이트톤의 주황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덜> 다크>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덜> 비비드> 다크톤 빨강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라이트톤 주황치마와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한국여대생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여대생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라이트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노랑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순으로 선호하여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라이트톤의 파랑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에 상관없이 빨강저고리와 라이트톤 파랑치마와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파랑치마와 덜톤 저고리의 배색은 선호하였으나 이들 배색에 대한 선호 정도에서 양국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라이트톤의 보라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미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여 라이트톤 보라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선호하였으나 다크저고리와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덜톤의 치마색과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덜로 통제시키고 빨강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 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덜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선호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덜톤 빨강치마에 라이트톤 빨강저고리를 배색할 때 한국여대생이, 비비드, 덜, 다크톤 저고리를 배색할 때는 미국여대생이 이들 배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주황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미여대생 간에 유사한 반응을 보여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덜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여 덜톤 노랑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양국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 즉 덜톤 노랑치마에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덜톤 빨강저고리와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초록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덜톤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에서 차이를 보여 한국여대생보다 미국여대생이 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파랑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여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덜톤 파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였으나 라이트 저고리와 배색에서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만 미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보라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보라치마와 덜톤저고리의 배색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덜톤 보라치마와 다크> 라이트> 비비드> 덜톤 빨강저고리와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양국여대생은 이들 배색에 대한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여 미국여대생이 한국여대생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다크톤의 치마색과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다크로 통제시키고 빨강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 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다크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양국여대생은 다크 빨강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는 공통점을 보였고, 덜톤의 치마와 덜, 다크 저고리의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선호하지만 한국여대생은 아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주황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크톤을 제외한 나머지톤의 빨강저고리와 배색에서 한·미여대생 간에 차이를 보여 다크톤 주황치마와 비비드나 덜, 다크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크 주황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양국여대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크톤 노랑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다크 노랑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다크톤의 초록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여 다크톤 초록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양국여대생 모두 다크 초록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와 배색을 가장 선호

하지 않았다.

다크톤의 파랑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다크 톤 파랑치마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크톤의 보라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차이를 보여 라이트, 비비드, 덜, 다크톤 빨강저고리와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다크톤 보라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지만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는 가장 낮았다.

#### 5) 무채색의 치마색과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무채색으로 통제시키고 빨강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흰색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선호도에서 차이는 보였으나 선호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양국여대생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흰색치마와 비비드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여대생은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상반된 문화적 차이를 나타냈다.

밝은 회색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밝은 회색 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두운 회색치마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양국여대생 모두 어두운 회색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였고, 어두운 회색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두운 회색치마와 라이트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한국여대생은 선호하는 것으로, 미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검정치마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여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과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고, 양국여대생은 검정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고, 검정치마와 덜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보다 미국여대생이 더 선호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빨강저고리와 치마색과의 배색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선호 정도를 분석하였다. 저고리톤은 빨강저고리로 통제하고, 치마색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와 무채색 4가지를 포함시켜 이들 치마, 저고리의 색을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조합한 112개(1색×4톤×6색×4톤+4색)의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배색에 대한 한·미 문화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여대생은 4가지 톤의 빨강저고리를 4가지톤의 치마색과 배색할 경우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라이트 빨강치마, 반대로 조합된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비비드 빨강치마, 그리고 비비드, 라이트 저고리와 덜 빨강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동일한 색상의 배색을 동일한 톤으로 조합할 경우 선호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동색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는 조화감 평가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는 배색에 대한 개인의 선호정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주황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빨강저고리, 라이트 주황치마와 비비드, 덜 빨강저고리, 비비드, 라이트, 덜톤 노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덜, 다크 파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덜 파랑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 다크 보라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빨강저고리와 난색인 주황이나 노랑색 치마와의 배색은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색계열 치마와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색 치마도 명도가 낮은 덜, 다크톤인 보라, 파랑과의 배색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마, 저고리의 색상과 톤, 특히 명도차가 선호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채색 치마와 빨강저고리의 배색에서는 어두운 회색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 검정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여 저고리는 선명하고 치마색이 어두운 배색을 선호하였다.

미국여대생은 4가지톤의 빨강저고리를 4가지톤의 6가지 치마색과 배색할 경우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빨강치마, 라이트 빨강저고리와 라이트, 다크 빨강치마, 덜 빨강저고리와 다크 빨강치마, 다크 빨강저고리와 덜 빨강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여 동색인 상하 빨강배색에서 동일한 톤 즉 톤온톤의 배색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미국여대생은 또한 라이트 주황치마와 라이트, 덜 빨강저고리, 다크 주황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의 빨강저고리, 비비드 노랑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 라이트 노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다크 노랑치마와 비비드, 덜 치마 즉 난색과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라이트 파랑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 덜톤 파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라이트 보라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 덜톤 보라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다크 빨강저고리, 다크 보라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고 무채색 치마와의 배색에서는 흰색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 밝은 회색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빨강저고리, 어두운 회색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검정치마와 비비드, 덜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미국여대생은 비교적 한색, 난색, 무채색과의 다양한 배색을 선호하여 치마의 색상과 저고리의 톤에 따라 선호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6가지 치마색과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문화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빨강치마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미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 빨강치마와 비비드, 다크 빨강저고리, 라이트 빨강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 덜톤 빨강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빨강저고리의 배색, 다크 빨강치마와 덜, 다크 저고리의 배색은 한국보다 미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톤의 조합인 비비드 노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배색을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여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주황치마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미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으로 비비드 주황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 다크톤 주황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라이트 주황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 다크 주황치마와 비비드, 덜 저고리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랑치마와 빨강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양국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으로 비비드 노랑치마와 덜 저고리, 덜톤 치마와 라이트, 덜톤 노랑저고리는 한국여대생이, 비비드 노랑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 다크 노랑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선호하여 톤조합에 따라 선호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한색계통인 초록치마와 빨강저고리의 배색에서 한미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톤 초록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선호하였고, 보라치마와 빨강저고리의 배색에서 양국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 보라치마와 덜톤 빨강저고리, 덜톤 보라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 빨강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보다 미국여대생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무채색과 빨강저고리의 배색에서 흰색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검정치마와 덜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어두운 회색치마와 라이트 빨강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4가지의 빨강저고리와 4가지톤의 6가지 치마의 배색에 대한 양국의 선호정도를 보면 배색 중 선호되는 배색의 수가 한국의 경우 19개, 미국의 경우 36개로 나타나 다양한 색상과 톤이 조합된 배색을 선호하는 범위가 한국여대생보다 미국여대생이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여대생 모두 좋아하는 배색은 비비드 노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라이트 빨강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 덜톤 파랑치마와 비비드 빨강저고리로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 배색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선호되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대생은 비비드와 라이트, 라이트와 비비드의 톤조합을 선호하고 동일한 톤조합은 선호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비비드와 비비드, 라이트와 라이트 등 상하동색의 동일톤 배색이나 덜과 다크, 다크와 덜 같이 유사톤의 배색을 선호하여 톤조합에 따라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선호하는 정도는 각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색과 톤으로 배색되느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양국여대생의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는 조합되는 색상과 함께 톤 즉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가 크게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배색유형에 따라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와 유사하여 배색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조화감 평가는 배색에 대한 개인의 선호정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문화간에 선호정도에서 차이가 큰 배색과 작은 배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의 전통배색이라 할 수 있는 빨강치마와 초록, 빨강치마와 노랑저고리의 배색이 아닌 빨강저고리를 이용하여 톤에 변화를 준 후 유채색, 무채색 치마와 배색하여 이들 배색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오늘날 한복은 생활의복이라기보다는 예복이나 행사를 위한 특수한 경우에 착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고유의 전통감각을 세계가 공감하는 감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한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한복에 대한 독특한 색채의 미를 찾아서 한복의 재조명과 발전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한복산업에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다양한 배색유형과 배색 면적비, 의복 형태와 질감, 평가자의 성별이나 연령층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 예측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선호도 평가시 피험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복, 배색, 선호, 빨강저고리, 톤

## 참 고 문 헌

- 강경자(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1) -톤인톤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1) -톤온톤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경자(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1) -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962-973.
- 강혜원, 고애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김영인, 문영애(2000). 한국성인 남녀의 의복선호색. 한국 의류학회지, 24(7), 964-975.
- 김윤경, 이경희(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드와 이미지의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3(3), 204-210.
- 나수임, 한명숙(1986). 여고생의 복색선호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1), 1-8.
- 백선원(1989). 여성의류의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석재은(1993). 성인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선호도와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외(2002). 패션디자인발상. 교문사.
- 이명희(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503-514.
- 이명희, 강승희(1998). 장식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미경(1984).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선재(1987). 한국여성의 의복선택 요인과 가치관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29-42.
- 이은영(1992). 복식의장학. 교문사.
- 이인자(1976).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785-799.
- 이인자, 송선옥(1982). 의복과 인물이 첫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27-37.
- 이주현, 강혜원(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Dress 및 Pants, Blouse의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현화, 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복식, 32, 313-332.
- 이현화, 박찬부(1998).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 한국의류학회, 22(3), 341-352.
-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여자 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 한국의류학회, 22(5), 597-606.
-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22(8), 1052-1059.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1990).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디자인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Northrop(1946). *The Meeting of East and West*. Macmillan Co.

(2005. 03. 25 접수; 2005. 08. 02 채택)